

개보수 공사 한창 공정률 70%... 자원봉사자 실전 투입

광주U대회 D-45
성공 개최 시민에 달렸다
경기운영 준비 차질 없나

“인전의 수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경기 운영은 물론 자원봉사자 관리, 식음료, 수송 대책 등을 세밀하게 챙겨야 합니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인천아시아대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아시아대회의 실패는 경기장별로 충분한 시나리오를 짜 상황별 예행연습을 하는 등 세밀하게 준비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종목별로 테스트이벤트를

국제 수영장등 3곳 신·증축 완료
나주 사격장 내달 테스트 이벤트
봉사자 1만2천명 경기장 등 배치
운영요원 처우 인색...격 갖춰야

열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U대회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경기장 개·보수 서둘러야=종목별로 테스트 이벤트를 열고 있지만, 경기장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 경기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광주U대회 조직위는 시설 개·보수공사가 전력투구하고 있다.

광주시와 조직위에 따르면 광주U대회 경기는 오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광주와 전남·북 일원 69개 시설에서 치러진다.

남부대 국제수영장·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광주국제양궁장 등 3곳은 신축하고 진월국제테니스장은 증축한다. 나머지 65개는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 사용한다.

신·증축 경기장은 광주국제양궁장을 제외한 3곳은 공사가 마무리됐다. 반면, 개·보수 시설은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개·보수를 맡은 광주시는 3개 권역으로 나눠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1권역은 광주시가 소유한 시설로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권역은 학교 체육관 등 시 소유가 아닌 시설물로 60%의 공정률로 다소 공사가 더디다. 이는 대부분이 학교 시설물로 학사일정과 겹치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권역은 전남·북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나주종합사격장의 공사가 지연되면서 전체 공정률이 낮아졌다. 하지만 광주시는 오는 21일 전자표적시스템이 납품되면 공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설치하는데 5일 가량 소요돼 25일이면 시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주종합사격장은 6월4

일부터 봉황기 사격대회를 통해 테스트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원봉사자 실전 투입=광주U대회의 손발과 입이 되어 줄 자원봉사자는 대회 성패의 열쇠다. 조직위가 가장 공들인 부분은 자원봉사자다.

광주U대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결과, 6만여명의 접수자 중 4단계 교육을 거쳐 최종적으로 1만2000명을 선발했다. 조직위는 희망 임무와 거주지 등을 고려해 최근 경기장·선수촌 등 각자 임무에 따라 배치를 마쳤다. 이 중 3600명은 언어 자원봉사자다.

자원봉사자 관리의 핵심은 이탈 방지다. 조직위는 리더그룹을 튼튼히 구축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자진상 사퇴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호칭을 ‘선생님’으로 하는 등 세심하게 공을 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다. 대회가 7월 초이다보니 대학은 방학이 들어간다. 학생들은 이 기간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로 학기 중보다 시간을 내기 더 힘들어진다. 묘수가 필요한 대목

이다. 조직위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연계해 ‘청년난장’을 열어 대학생들 문화와 스포츠의 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국제대회 걸맞는 격 갖춰야=‘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추구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국제대회에 걸맞는 최소한의 격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각 경기장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운영요원에 대한 처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조직위는 인천아시아대회를 기준으로 운영요원의 활동비를 1일 4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인천아시아대회를 당시 경기단체들이 “활동비 4만원은 너무 적다”고 반발했던 사실을 되짚으면 활동비가 너무 인색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인 인천이 아닌 광주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활동비는 더 초라한 셈이다.

한 경기단체 관계자는 “경기를 운영하는 임원은 20~30년간 그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들이다”면서 “국내 대회의 활동비도 1일 10만원을 책정하는데 4만원은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성용, 무릎 수술

뺨조각 제거... 회복까지 4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에서 활약하는 기성용이 간단한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성용은 17일 홈에서 열리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2014-1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등 남은 경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스완지시티는 이날 맨체스터와의 경기를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미드필드 기성용이 ‘작은(minor)’ 무릎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기성용은 프리미어리그 남은 두 경기에 나올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수술은 프리 시즌 준비에 맞춰 돌아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완지시티는 무릎 수술(knee surgery)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언제 부상을 당했고 수술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기성용의 에이전트인 C2글로벌 관계자는 “오른쪽 무릎 밑에 옷자란 뼈가 있었는데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갔다. 그동안 뺨조각이 돌아다녀 인대나 연골을 건드려 염증이 생기곤 했다”며 “지난주 수요일에 무릎 관절경 수술로 뺨조각을 빼내는 간단한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즌 종료 두 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수술을 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회복에 3~4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성용은 이번 시즌 팀 내 최다인 8골을 넣으며, 스완지시티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스완지시티도 기성용의 활약에 힘입어 시즌 최다 승점을 경신하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남부대 국제수영장 U대회 테스트 이벤트

오는 7월 광주유니버시아드 수영 경기가 펼쳐지는 남부대 국제수영장이 완공돼 최근 개관했다. 이 경기장에서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광주U대회 테스트 이벤트로 ‘제64회 회장배 겸 KBS배 전국수영대회’가 열렸다. 참가 선수들이 경기장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가대표 이재영·백수연 나란히 금·은

〈광주시체육회〉

회장배 전국수영대회...광주U대회 선전 기대

광주시체육회 소속 국가대표로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하는 이재영과 백수연이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땀다.

이재영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광주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광주U대회 테스트 이벤트를 치러진 ‘제64회 회장배 및 KBS배 전국수영대회’ 여자일반부 자유형 100m 결승에서 57초05로 금빛 물살을 갈랐다.

올해 초 광주시체육회에 입단한 이재영은 계명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오는 7월 광주U대회에 출전해 세계 선수들과 경쟁을 펼친다.

백수연은 평형 50m 결승에서 32초63으로 골인, 은메달을 수확했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에 재학 중인 백수연은 광주U대회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해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

‘다이빙 기대주’ 류민재·조성인(광주시체육회)은 남자일반부 싱크로다이빙 3m에서 312.78점을 얻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성인은 1m스프링다이빙과 3m스프링다이빙에서 동메달 2개를 추가했다. 조중부에서는 박제민(화정남초 6)이 다이빙에서 금빛 연기를 선보였다.

박제민은 여초부 플랫폼오픈 다이빙 결승에서 203.55점을 획득, 울산구영초의 박민주(6) 6점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상훈(효덕초 4)은 남초부 점영 100m 결승에서 1분14초63을 기록해 은메달을 땀고, 김지오(화정남초 6)는 스피링보드1m 결승에서 동메달을 수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9인제 배구 시·도 대항전 열겠다”

신임 9인제 배구연맹회장에 오승재 전 전남배구협회장

오승재 전 전남배구협회장(54·동양환경 대표이사)이 제12대 한국9인제배구연맹 회장에 선임됐다.

한국9인제배구연맹은 지난 14일 서울 연맹 사무실에서 대의원총회를 열어 새 회장에 오승재 전 전남배구협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신임 회장은 최근 박승수 회장이 대한배구협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선출됐고, 오는 2017년 정기 대의원총회까지 한국9인제배구연맹을 이끌게 됐다.

오 회장은 지난 2013~2014년 전남배구협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팀 육성 학교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해 회장 출연금을 대폭 늘리는 등 배구 육성에 공헌한 점이 높게 인



정됐다. 또 지도자들의 지도의욕 고취에도 남다른 지원을 해왔다.

오 회장은 “전남배구협회장의 경험이 바탕이 돼 한국9인제배구연맹 회장에 오르게 됐다”며 “냉혹한 승부를 요구하는 6인제배구와는 달리 9인제배구는 배구인들의 화합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임기간 동안 ‘9인제배구 시·도 대항전’을 창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